

지역 소식통

정읍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 현장 복무점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16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 20명을 대상으로 태인, 응봉 등 영농현장 복무점검 및 여름철 영농작업, 농장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해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3주간 군사훈련교육을 마치고 현역인원대상자는 3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개월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현재 정읍에는 20명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매일 영농현장복무 점검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도 불시에 복무점검을 해 무단이탈, 영리활동 등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지역
쑥쑥 치매예방교실 운영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쑥쑥 치매예방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쑥쑥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다양한 생활터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인지학습, 실버체조, 난타, 원예 공예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총 48회 운영해 63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임산물체험단지, 내장산 숲 체험, 목공 치유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예방교실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은 물론 신체 건강, 사회적 교류 증진, 노년기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식품기업 성분분석 쇄도

고창 배리&바이오식품연구소, 관내·외 농가·식품기업들 분석 요청 지원 제공

고창 (재)배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에 고창군 관내 농식품기업의 식품 분석 의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연구소는 설립 이후 관내·외 농가 및 식품기업들의 식품 분석 의뢰 요청에 꾸준한 분석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연구소는 고창군 관내 농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및 산도 측정 등, 분석을 매년 100건 이상 지원했다.

2022년 기준 금군안초(대표 김원형)의 11개 업체의 분석 요청에 따라 156회 분석을 지원하였고 2023년 상반기 월평균 20회 이상의 분석을 지원했다. 연구소에 식품 분석을 요청하는 업체



체들은 "광주나 전주로 분석시료를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가야하는데, 고창

지역 내 연구소가 있어 멀리 타지역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다"며 분석 지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식품 분석 지원은 관내 농식품 기업에 한해 무료(2-3개)로 적용되며, 다수의 시료 또는 특정 성분에 대한 분석은 20%의 관내 기업 합인 적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배리&바이오식품연구소(연구소장 이희권)는 "고창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관내기업 요청에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더 많은 분석 지원 혜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 최대 2억1500만원 지원

정읍시,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 대출금리 1% 중 0.5% 이하 지원

정읍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도 사료 구매 자금(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및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도 사료구매자금 대출금리 1% 중 0.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반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25일까지 융자실행 관련서류, 대출상환 증빙서류, 통장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 및 중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희수 시장은 "올해 봄 가뭄과 여름 집중호우로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농업 선도할 농업경영인 육성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7일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청년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개강식을 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해 정읍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 공통으로 실시하는 SNS마케팅 및 농업퍼스널브랜딩 교육과 본인이 희망하는 강좌를 선별해 수강할 수 있는 선택교육이 총 7회에 걸쳐 실시된다. 마지막 교육은 선도농장에 방문해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체계적인 실무지식과 기본설계 등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농업 퍼스널

브랜딩, SNS 마케팅, 창농 성공스토리 등 다채로운 주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읍시 청년창업농은 2018년 1기부터 올해 6기까지 총 289명이 선발됐다. 또 시는 매년 신규 청년창업농이 선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창업농협회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어 정읍농업에서 청년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정읍시 농업 발전에 버팀목이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노인일자리아사업 158명 추가 모집

부안군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12월 까지 해당 분야 노인일자리 158명을 늘린 것이다.

이번 노인일자리아사업 확대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공익형(123명)과 시장형(21명), 사회서비스형(14명) 사업으로 나눠 진행하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맡아 수행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2023년 분예산에 확보된 군비 2억 천만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158명을 늘려 올해 부안군의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는 총 3,365명에 이른다. 국비 지원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아사업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 확보에 나선 결과다.

올해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행 기관 4곳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365개의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금과 같이 노인인구와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숙 부안군 사회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아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건강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아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6.25전쟁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6.25전쟁 당시 공로가 인정돼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전사로 받지 못한 무공훈장이 70여년만에 유족(자녀 김명찬)에게 주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6.25전쟁 유공자인 고(故) 김규현 일병의 자녀 김영찬(70)씨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은 17일 부안군청에서 열렸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제5사단 35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 중 전사했으며, 공적을 인정받아 1953년 7월 16일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하였다.

부친의 훈장을 수령한 자녀 김영찬씨는 부친의 사망이후 출생한 유복자로서 70여년의 시간동안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와 이번 무공훈장



전수식은 애뜻함을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故) 김규현 일병의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담아가

억하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른 것이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석동산 이용자 편의 증진 휴먼지털이기 설치

부안군은 군민들이 석동산 산책로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석동산 산책로 주요 출입구에 휴먼지털이기 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석동산은 연곡공원으로 지난 2020년 7월 공원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편백숲과 솔바람숲이 있는 다양한 노선의 산책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책 후 휴과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난주중 뒷편과 건설선 산책로 출입구에 휴먼지털기를 설치했다.

군은 기존의 압축기 방식에 비해 이용자 안전성이 높고 잔고장이 적으며,



저소음의 장점이 있는 송풍방식의 기기로 설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 도시공원과장은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